

# 1천원 밥상으로 기부문화 확산한다

## 행복1%나눔재단

... '천원의 행복 밥집' 운영

(사)행복1%나눔재단(이사장 조유식, 김해불교신도회 회장)이 운영하는 '천원의 행복 밥집' 현장을 3월 25일 찾았다. 오전 11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이내 다슬기 국, 숙주나물, 어묵 조림 등으로 구성된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다. 2년 이상 지난 효소 발효액으로 조리된 반찬이라고 하니 정성이 느껴졌다.

'천원의 행복 밥집' 개점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하지만 그전부터 문을 열고 들어와 식사를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손님들이 줄을 서면 오후 2시까지 식사행렬이 이어진다.

하루에 밥집을 찾는 손님은 평균 300여명에 이른다. 할머니, 노동자, 시장 및 상인부터 직장인들까지 구성원들도 다양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천원 이상씩 후원함에 보시를 한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모두 식재료 구입에 쓰인다. 하지만 밥집 운영자금으로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

조유식 이사장은 "매달 적자가 500만원 가량인데 나머지는 사비로 회사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한다. 왜 무료급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천원의 행복밥집은 바로 행복1%나눔재단"을 위한 홍보 창구라 할 수 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매달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행복 1% 나눔재단이 개원한 '천원의 행복 밥집'은 천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식당 전경, 오른쪽은 봉사자들의 모습.

### 김해청년회원 20여 명이 시작

지난해 10월부터 밥집 운영

계층 종교 초월한 봉사자 참여

하지만 형편이 괜찮은 이들도 있다. 이런분들은 우리의 뜻을 알고 선뜻 기부에 동참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행복1%나눔재단'은 후원자 2000명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2000명이 만원씩 후원하게 되면 국민자들을 위한 수술비, 무주택자 전세금,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행복1%나눔재단 봉사자들은 불자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를 초월해 찾고 있어 혼란을 더한다. 김해 중앙교회 허영배



(54·물리치료사) 집사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설치기 봉사를 하고 후원함에 만원씩을 넣는다. 그는 "종교와 상관 없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치기 하는 동안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외이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행복합니다"라고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행복1%나눔재단은 김해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임원 20여명으로 출발해 현재 정기 후원자가 200명이 넘어선 상태다. 후원자 대부분은 김해 시민들로 노점 및 시장 상인, 마트 점원, 주유소 사장, 약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도 있다. 청소년들을 비롯해 주부들이 와서 설치기와 청소를 돕는다. 또 길 가던 시민들이 들려 치약, 과일, 커피까지 소소히 놓고 가니 혼란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이사장은 "일체 모든 것이 부처라고 했다. 불교를 굳이 내세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포교 활동이다. 현재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는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현재 행복1%나눔재단은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후원자를 발굴, 기부 문화 확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행복1%나눔재단은 2007년 7월에 출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등 소외이웃들의 의료비 학비 전담체제에 쌀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복지사가 지대에 놓인 극빈층 발굴을 통해 적극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 불광사, 라오스 초등학교 방문 교육 지원

3월 11일~18일 40여 회원 참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보광 스님(오른쪽)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 자비나눔 실천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이 3월 11일~18일 라오스 방비엥 지역 반 티온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반티온 초등학교는 불광사가 2014년 설립한 학교로 이번 행사에는 사부대중 40여 명이 함께했다.

보광 스님과 회원들은 국내에서 준비한 스케치북, 색연필, 신발, 컴퓨터 3대 등 총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루앙프라방 등 라오스 산지 곳곳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과자, 향품 등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하고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

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지역의 환우를 돕는 보시행도 실천했다.

주지 보광스님은 "행복을 베푸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 이곳에 왔죠. 여러분이 기꺼이 낸 이 마음이 현지 학생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전달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오스 방비엥 마을 대표인 라오의 산들바람을 이끌고 있는 보광 스님, 김동현 총무, 학교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 백성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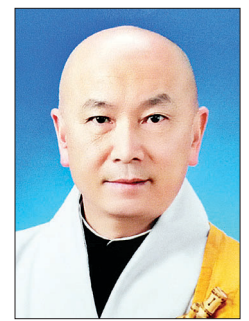
## 창원시불교연합회 3대 회장 도홍 스님 취임

3월 27일 창원호텔서 이·취임 법회... "연합 봉축 법회 기대"

"창원불교연합회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세 지역을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암불교연합회를 구성하고 체계적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불교연합회 새 회장으로 창원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법회 준비위원회(회장 응산)는 3월 27일 창원호텔 3층 목련홀에서 취임법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불교연합회 상임고문 지대 스님 및 안상수 창원시장, 강기운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사암주지스님,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신도회·신행단체 임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제2대 회장 원행 스님의 공로패 시상,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대 임원진 임명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제3대 회장 도홍 스님의 취임사 및 안상수 창원시장, 강기운 국회의원의 축사 등도 진행됐다.

도홍 스님은 창원불교연합회의 과제에 대해 "회합과 협력"을 꼽았다. 스님은 "경남 지역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대략 30% 정도만 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각 종단별로 나눠 활동하며 연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모든 종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각 종단과 마산, 진해, 창원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님은 "봉축법회 등 큰 행사는 창원과 마산 진해에서 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홍 스님은 1974년 근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9년 (사)대한불교유담종문회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 명해 스님을 전계사로 1979년 비구계 수지, 1998년 전통사찰 창원불곡사 주지로 임명됐다. 현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 창원불림청소년문화회집 관장, 창원교도소교화법사회 회장, 경남불교대학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 보살계 봉행

자장율사가 계를 전한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주지 원산)가 보살계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4월 23일~25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연다. 수계산림은 3일 동안 입재식과 산림법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다.

님의 진신사리와 금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의 근본도량이다. 올미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3사 7중사를 모시고 여법히 봉행하니 두루 동참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발원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055)382-7182

하성미 기자

## 부산 조계종 연합, 수진 스님 '선요 특강'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스님)는 3월 24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선요 II' 강좌를 열었다. 스님 100여명이 모인 이번 강의에서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이 강사로 나섰다.

미보다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만들어 보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으로 이번 강좌를 수료한 스님은 연수점수 30점을 받는다. 수업은 3월 24일~4월 21일 매주 화요일마다 총 5회 열리며 3시간씩 총15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하성미 기자

## 미타선원, 4월 25일 창건 18주년 개산대제

장학금 및 보살행 후원금 전달... 지역사회에 회향

어린이·청소년 포교 후원금 수여

나눔으로 개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창건 18주년을 기념해 4월 25일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서 미타선원은 이웃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 등을 마련한다.

개산대제 법요식 1부에서는 육법공양, 합창단 음성공양 등은 물론 이웃사랑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특별 후원금 수여, 봉사자 감사장을 수여한다. 또한 스님들을 위해 학업 장학금을 보시한 불자들을 초청 회향 감사인사를 전한다. 이어 2부에서는 법문이 3부에서 합동천도제도 봉행된다.

장학금은 해동중 5명, 동주여고 3명, 신

도자녀 초중고 대학생 9명 등에 총 1,000만원이 수여된다.

이웃을 위한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는 미타선원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중구 노인복지관 '중구지역 재가어르신의 치매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후원금과 감보디아 어린이 돌기 등 6개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다.

올해는 복지법인 해원에서 운영하는 영도구노인복지관을 새롭게 후원처로 선정 보시금을 전달한다.

주지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이 도심 속의 전법도량으로 발전해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에 꾸준히 회향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제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과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mm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 75,000 (2줄이상)
- 1m (50구) @ 90,000 (2줄이상)
- 2m (25구) @ 80,000 (2줄이상)

\* 국산LED전구 (50개)  
\* @ 90,000 (개당 1,800원)

주광색      쫓불색

바림등(6cm) @ 2,500원 (60개이상)  
바림등(8cm) @ 3,000원 (30개이상)

• 화염등(6cm) @ 3,200원 (60개이상)    • 화염등(7cm) @ 3,500원 (50개이상)    • 화염등(8cm) @ 4,000원 (30개이상)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 (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 불교용품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농협: 010-2094-2991-09 ◆ 국민은행: 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